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실시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지사장 김성수)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팀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성수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장과 조인갑 농협부안군지부장, 신왕철 변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생필품 전달과 건강검진권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부안군 김씨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 신용 회복컨설팅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어울림봉사단,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 행복전달

(사)어울림봉사단(이사장 김종만)은 지난 25일 김장철을 맞아 봉사단 회원 40여명과 함께 '2021 사랑의 김치 나눔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어울림 봉사단은 매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을 담가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9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평화동 저소득층 세대와 장애인도우 등 250여 세대에 전달했다.

김종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삼천3동지사보합, '사랑의 김장나눔'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동장 김병용)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종우)는 지난 24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아 관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과 기부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삼천3동 새마을부녀회 삼천3동 해바리봉사단, 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 살름노인복지센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삼천주공6단지관리소 등 지역의 많은 봉사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길을 보태 그 의미를 더했다. /김윤상 기자



효자1동 자생단체 연합,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

전주시 효자동(동장 신인식)은 지난 25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계경) 및 각 자생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주민센터 미팅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담아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소외계층 160여 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중부시마을금고 효자점, 풍남로티리클럽, 전북의식산업, 폐지전지, 전주피티마신협 서부시장지점, 전북은행 효자동지점, 일실치즈농협 미르지점, 장용면내과의원, 롯데하이마트 효자점 등 효자동 여러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기획됐다. /김윤상 기자

'행복을 水놓는' 김장나눔

K-water 금강유역본부 · 해바라기 후원회, 사회복지시설 · 다문화 가족에 전달



K-water 금강유역본부(본부장 김세환) 임직원과 해바라기 후원회는 지난 28일 시민단체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숙)와 함께 '세상에 행복을 水(수)놓는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금강유역본부 임직원과 지역 내 학부모들의 모임인 해바라기 후원회들은 김장김치 700kg를 담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를 통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김장김치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 가족 등 70세대에 전달됐다.

K-water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세상살이가 이루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되고자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함께하는 원봉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전북 혁신교육 어울마당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19~20일까지 황학당 및 교육문화관 강의실 일원에서 열린 2021 전북 혁신교육 어울마당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참가자 기반 혁신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학교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전북 혁신교육, 교육과정으로 깊어지다'를 주제로 한 이번 어울마당 행사는 혁신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사례 공유, 미래의 혁신교육 정책 발표, 초중고 혁신교육 연구 방안 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코로나19방역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유튜브 송출을 통해 비대면 참여 또한 가능토록 했다.

김우영 총장은 "그간 전북교育을 발전을 위해 힘써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전주교육대학교도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전 우승

전주대학교는 레슬링부가 최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32회 추계전국대학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단체전 우승, 개인전 1위(2명), 2위(1명), 3위(5명)를 휴슬며 선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준 선수(운동처방학과 3년)는 그레코로만형 130kg에서 예선부터 결



승까지 8:0으로 테크니컬 풀승으로 우승했다. 그레코로만형 87kg 강현수 선수(4년)는 결승에서 한국체대 정진영 선수에게 3: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레코로만형 97kg 권정율 선수(4년)는 2위, 63kg 소원(1

학년), 67kg 윤유민(2학년), 72kg 한다호(3학년), 77kg 이노준(4학년) 선수는 각각 3위에 입상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에 입상한 김민준 선수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내 기쁘다"며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잘 이끌어 준 김독님과 묵묵히 응원해 준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레슬링부는 김윤호 김독이 지도자상을 받아 이번 대회 단체전 개인전, 최우수 선수상 및 지도자상까지 휴슬며 대학 최경임을 입증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육군종합행정학교, 학·군 교류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육군종합행정학교(학교장 김민호 소장)가 손을 맞잡고 미래 군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육군종합행정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학·군 교류협약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김민호 학교장을 비롯해 4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강연 ▲각종 강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학·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연구실적 및 자료 공유 등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군 계열학과(군사학과·군사안보학과·군사기술학과)를 중심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와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 계열학과 재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민호 학교장은 "군 인재 양성 특화 대학인 우석대학교와 교류협약을 맺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학·군 교류 활성화의 기반 마련은 물론 우리 군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박문제관리센터-섬진강댐 노인복지관 협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이희정)가 25일 지역사회 도박문제의 예방과 치유 연계망 활성화를 위해 나눔복지재단 섬진강댐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제작을 위한 사업 협력과 보유 자원의 적극적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희정 센터장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도



박문제 예방뿐만 아니라 도박문제자와 가족에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

며 "앞으로도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예방과 치유의 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상담기관이다. /정은성 기자



남원 인월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간담회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26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인월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55명(지리산불레길 흥보지기 22명, 노노케어 23명)으로 운영되었으며, 10개월~12개월(월 30시간)동안 독거노인들의 케어활동 및 지역 내 환경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페적하고 아름다운 인월면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여기간 중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은주 인월면장은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인월면이 더욱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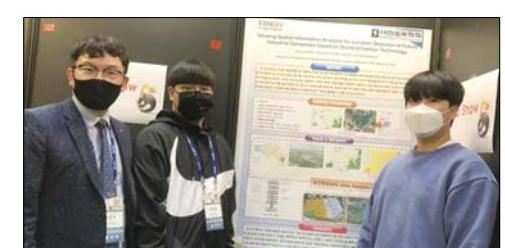
전북신협, 남원시에 실버카 30대 후원

남원시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단장 오종근)이 지난 25일 보행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보행보조기구 실버카 30대(300만원 상당)를 시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봉사단 단장과 이환주 시장은 시청에서 전달식을 가졌으며, 실버카는 남원시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종근 단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훈 남원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전북신협의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이웃돕기 참여를 위한 미중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26일 대한토목학회에서 주관하는 'KSCE 2021 CONVENTION'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토목학과 김영주·이근상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적지분석 및 3차원 모델링 등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드론활용기술 기반의 미래산업단지 적지선정을 위한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적토목학과 차영재·오민종 학생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드론) 자격증을 취득, 미래산업단지 적지선정에 필요한 드론 영상 활용 및 자료처리 업무를 수행해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을 발표한 김영주 교수는 "지적토목학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선정돼 4차산업혁명의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정보(GIS)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의 다양한 공간 정보 활용을 통해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